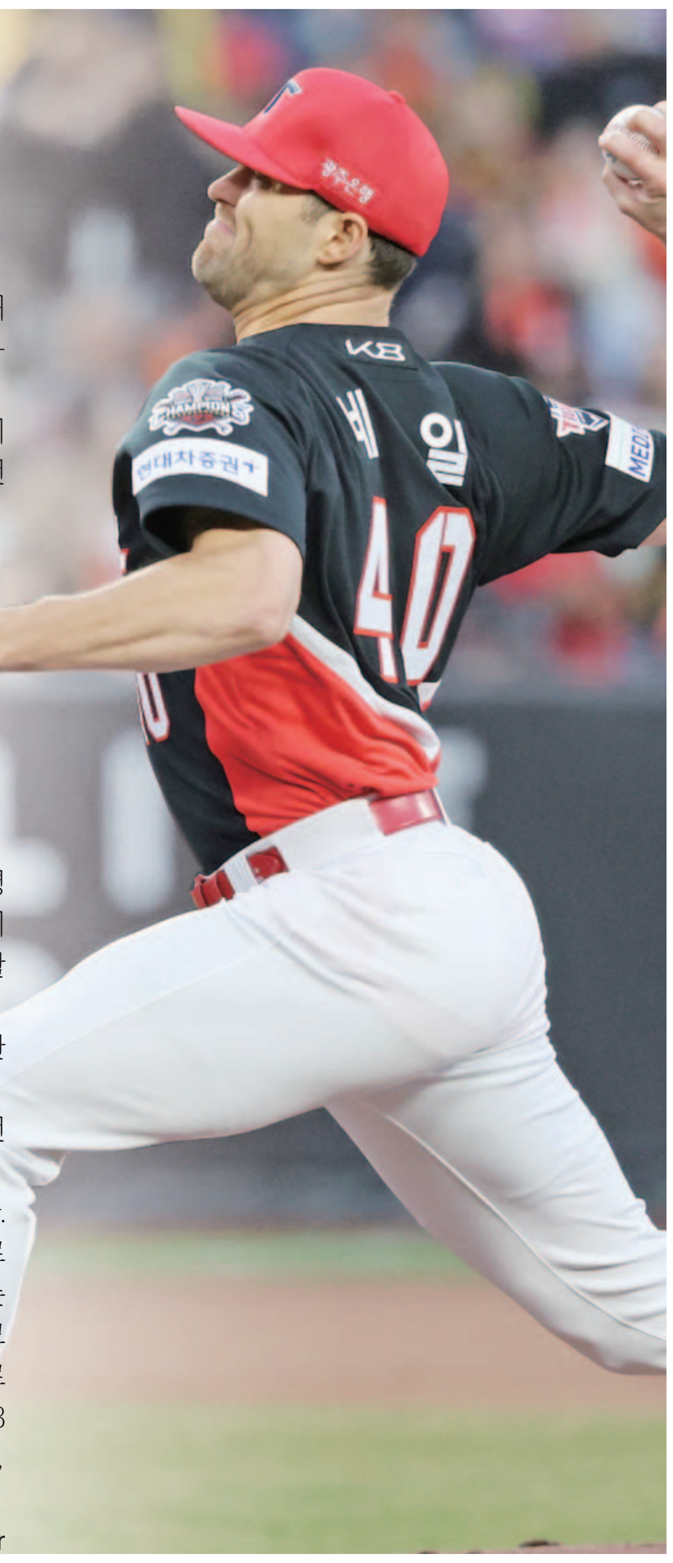
SPORTS

2025년 4월 1일 화요일

모두 '1강' 꼽지만 마운드 부진 KIA 반등할까

주중 광주서 삼성전·주말 잠실서 LG와 맞대결
3승 5패 승률 0.375 리그 7위…마운드 살아나야



신한 SOL Bank KBO리그 중간 순위(31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LG	7	7	0	0	1.000	0
2	삼성	8	5	3	0	0.625	2.5
2	SSG	8	5	3	0	0.625	2.5
4	KT	8	4	3	1	0.571	3
5	키움	8	4	4	0	0.500	3.5
6	NC	7	3	4	0	0.429	4
7	KIA	8	3	5	0	0.375	4.5
7	한화	8	3	5	0	0.375	4.5
9	롯데	8	2	5	1	0.286	5
10	두산	8	2	6	0	0.250	5.5

최하위 추락 위기에 놓인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순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KIA는 지난주 주중 키움히어로즈에 루징시리즈를, 주말 한화이글스에게도 루징시리즈를 당했다. 그 결과 승률은 0.375(3승 5패)를 기록, 승패 마진 마이너스(-2)와 함께 리그 7위로 하락했다.

KIA는 현재 리그 1위 LG트윈스(7승)와 4.5게임차로, 공동 2위 삼성라이온즈·SSG랜더스(5승 3패)와는 2.5게임차로 벌어졌다.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지난해 통합우승팀이자 올해 '절대 1강'으로 꼽혔던 팀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성적이다.

현재 KIA가 허덕이고 있는 이유로는 마운드 부진이 꼽힌다.

선발진은 나름대로 제 몫을 하고 있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은 2경기 11이닝 5피안타 10탈삼진 무실점으로 리그 최상위급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새로운 외인 투수 아담 올러는 2경기 11이닝 9피안타 11탈삼진 6실점(5자책)으로 무난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토종 에이스 양현종(2경기 11이닝 평균자책점 4.09)과 5선발 김도현(1경기 6이닝 평균자책점 0.00) 또한 역투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불펜진이다.

지난해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전력이다. 장현식이 떠난 빈자리 역시 세이브왕 출신 조상우가 합류하며 공백을 메웠다.

하지만 팀이 4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불펜들이 점수를 내주며 역전당한 경기가 많았다.

지금까지 KIA 불펜의 평균자책점은 무려 8.07이다. NC다이노스(8.13) 다음으로 압도적인 수치다.

필승조로 활약했던 전상현은 지난 28일 한화전에서 3실점을 내주며 평균자책점이 10.13으로 치솟았다. 이외에 이준영(6.75), 황동하(6.43), 곽도규·임기영(이상 27.00) 등 주축들이 컨디션 난조에 빠졌다. 지난 27일 키움히어로즈 전에서 3실점을 내준 마무리 정해영(9.00)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조상우와 최지민이 평균자책점 2.45로 선방하고 있는 듯 보이나, 주자를 내보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IA의 승리를 이끌고 있는 건 타선이다.

KIA는 올 시즌 팀 타율 5위(0.283)에 위치했다. 안타 79개(3위), 홈런 13개(1위), 출루율 0.370(5위), OPS(출루율+장타율)도 0.861로 3위에 올랐다.

이 중 지난해 한국시리즈 MVP인 김선빈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8경기 25타수 11안타 6타점 타율 0.440으로 팀 타선을 이끌고 있다. 지난 30일 한화와의 경기에서는 7회초 역전 적시타를 터트리며 팀의 5-3 승리를 견인했다.

또 새 외인 패트릭 위즈덤의 상승세가 무섭다. 8경기에서 24타수 7안타 8타점 타율 0.292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주 한화와의 3연전에서 매 경기 홈런을 쏟아내는 등 총 4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이 부문 리그 1위에 안착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KIA는 주중 경기를 삼성과 치르게 된다.

삼성은 현재 5승 3패 승률 0.625로 리그 2위에 위치했다. 평균자책점은 5.07로 하위권(8위)이다. 하지만 타율 4위(0.295), 출루율 4위(0.375), OPS 2위(0.868) 등 타선의 활약이 돋보인다.

KIA와 삼성 모두 타선이 강세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난타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날 삼성은 최원태를 1일 선발로 내보낸다. 이에 KIA는 윤영철을 선발로 투입한다.

삼성과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잠실에서 LG를 상대한다.

한편 지난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 구조물 낙하 사고로 치료 중이던 20대 1명이 31일 치료 도중 숨졌다. 이에 KBO는 1일부터 3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1일 희생자를 추모하며 KBO리그 및 퓨처스리그 경기를 모두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무관중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창원(SSG-NC) 경기는 3연전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잠실, 수원, 대전, 광주 경기는 2일부터 재개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국 배구 동호인 2000명 광주서 모였다

'제2회 빛고을무등산배 전국생활체육 배구대회' 성료
시도 60개팀 참가…나주일출·브이라인·빛고을 우승

'제2회 빛고을무등산배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가 지난 29~30일 광주여자대학교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시배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광주시, 광주시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광주와 전남을 비롯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세종, 경기, 충남, 경남 등에서 활동하는 동호인 60개팀 20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틀 동안 진행된 경기에서 24개팀이 출전한 남자3부는 나주일출(전남) 팀이 결승에서 거창가즈아(경남) 팀을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2-1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전주V9마이(전북) 팀과 아구탱(대전) 팀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역시 24개팀이 참가한 여자3부에서는 브이라인(대구) 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브이퀸(광주) 팀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주V9(전북) 팀과 광주히트(광주) 팀은 공동 3위에 올랐다.

만 50세 이상 동호인들이 참가한 시니어부에서는 12개팀이 출전해 빛고을(광주) 팀이 결승에서 휴먼스(서울·경기 연합) 팀을 이기고 우승했다. 정읍배사모(전북)와 렛츠고(광주)는 공동 3위에 올랐다.

김석주 광주시배구협회장은 "어수선한 사회 상황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해 빛고을무등산배가 생활체육배구대회의 새로운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2회 빛고을무등산배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가 60개팀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9~30일 광주여자대학교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개회식 후 광주배구협회 관계자와 동호인들이 함께 기념 촬영하는 모습.

축구협회 '올해의 선수'에 손흥민…통산 최다 8번째

영플레이어상은 양민혁…올해의 여자 선수는 지소연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지난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한국 축구 선수로 인정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손흥민을 2024년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상을 4회 연속 받고 2023년엔 김민재(뮌헨)에게 빼앗겼던 손흥민은 2년 만에 다시 최고의 자리로 돌아왔다.

손흥민은 2010년도부터 매년 수여해 15회째를 맞는 이 상을 이번까지 총 8회 받은 '통산 최다 수상자'다. 손흥민은 2013, 2014년과 2017년에도 이 상을 거머쥔 바 있다.

'올해의 영플레이어'로는 2024시즌 K리그1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치고 잉글랜드 무대로 떠난 양민혁(18·퀸스파크 레인저스)이 뽑혔고, 여자 올해의 선수와 영플레이어 상은 각각 지소연(시애틀 레인), 김신지(20·AS로마)가 받았다.

축구협회 올해의 선수상은 기자단 투표 점수 50%, 협회 전문가(기술발전위원 및 여자축구 전임지도자) 투표 점수 50%를 합산한 포인트로 선정된다.

손흥민은 합산 포인트 109점을 받아 김민재(104점)를 근소하게 따돌리고 타이틀을 되찾았다.

3위는 이재성(48점·마인츠)이 차지했다.

지소연(62점)은 2024시즌 수원FC의 WK리그 우승에 앞장선 스트라이커 강채림(61점)을 단 1점 차로 제치고 통산 8번째 영예를 안게 됐다. 연합뉴스

'대역전극' 김효주, LPGA 포드 챔피언십 우승

릴리아 부에 연장 승리 '통산 7승'
상금 1000만달러 돌파…한국 9번째

우승 트로피를 든 김효주. 연합뉴스

김효주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년 5개월의 침묵을 깨고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또 LPGA 투어에서 역대 28번째로 통산 상금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돌파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총상금 225만달러) 최종일 연장전에서 릴리아 부(미국)를 제압했다.

둘은 똑같이 최종 합계 22언더파 266타로 4라운드를 마치고 18번 홀(파4)에서 연장전을 치렀다.

첫 번째 연장전에서 김효주는 1.5m 버디 퍼트를 집어넣었고, 부는 3m 버디 퍼트를 놓쳤다.

김효주가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23년 10월 9일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 제패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김효주는 LPGA 투어 통산 7승 고지에 올랐다. 올해 LPGA 투어에서 챔피언에 오른 한국 선수는 김아림에 이어 김효주가 두 번째다.

우승 상금 33만7500달러(5억원)를 받은 김효주는 통산 상금 1000만달러를 돌파하고 액수를 1007만1237달러로 늘렸다.

LPGA 투어에서 통산 상금 1000만 달러를 넘어선 선수는 김효주가 28번째이며 한국 선수로는 박인비, 양희영, 고진영, 김세영, 박세리, 유소연, 최나연, 김인경에 이어 9번째다.

선두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채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효주는 신들린 퍼트로 버디 9개를 잡아내며 8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러 역전극의 발판을 놨다. 4라운드 5번 홀까지 3타를 줄여 추격에 시동을 건 김효주는 7~11번 홀 연속 버디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부는 9번 홀(파4) 짧은 파퍼트를 놓쳐 김효주에게 2타 차로 밀렸다.

김효주는 그러나 버디를 잡아야 할 12번 홀(파5)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삐끗했다.

부는 12번 홀(파5) 버디로 다시 공동 선두로 복귀했다.

하지만 김효주는 다시 힘을 냈다.

16번 홀(파4) 그린 밖에서 퍼터로 친 세 번째 샷이 홀에 떨어지면서 맨 먼저 22언더파를 치고 다시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부가 14번 홀(파4) 버디로 다시 공동 선두로 따라오자 17번 홀(파5)에서는 두 번 만에 그린에 볼을 올려 두 번 퍼트로 다시 앞섰다.

부는 17번 홀에서 멋진 벙커 샷으로 1타를 더 줄여 끝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김효주의 달아오른 경기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부는 이날 4언더파 68타를 쳤다.

코푸즈가 3위(21언더파 267타)에 올랐다.

이미향과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공동 6위(18언더파 270타)를 차지했다.

기대를 모았던 윤이나는 공동 22위(14언더파 274타)에 그쳤다.

대회 2연패에 도전했던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도 윤이나와 함께 공동 22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